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순교자 대축일

기도서 496면(다해)

제1 독서 : 2역대 24, 18-22

제2 독서 : 로마 5, 1-5

복음 : 마태 10, 17-22

순정이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 10, 22)

강론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님

김기수 신부/복자천주교회

군계 닫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속오개와 삼강오륜에 의한 인간 완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한민족에게 그 분을 믿고 따르고 모범으로 살면 진정 인간 완성에 도달 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사실이 이 땅에 전달된지가 205년이 되는 지금, 돌이켜 볼 때 교회의 역사는 피와 죽음의 처절한 역사였으며 수많은 선조들이 피와 죽음을 통해 후손인 우리에게 불사불멸의 신앙을 싣듯게 해주었으며 교회의 초석이자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신앙의 불꽃으로 영원히 타오르고 잊혀질 수 없는 분이 한국의 첫 사제, 순교자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그 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 신앙이 전해진지 61년 만인 1845년 8월17일에 수선 티덕이 되었고 1846년 9월16일 서품1년을 겨우 넘기신 달에 하느님을 믿는다는 죄목으로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당하셨습니다. 신부님은 1821년 충청도 솔피에서 탄생하여 15세 되던 해에 모방 신부님에 의해 신학생으로 뽑혀 마카오로 유학 가시면서 순교자의 생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어려움, 병고에 시달리는 고통의 생활은 차체에 두더리라도 마카오를 떠나신 후 고국에 돌아오시기 위해 수만리 중국 대륙에서 노숙하시면서 피호르는 발바닥을 형검으로 싸맨채 추위와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살으셨던 삶! 험하고 거친 한만 국경을 겨우 겨우 넘으셨으며 내왕했던 시기! 혹우름의 풍랑과 산더미 같은 파도에 시달리면서 일염편주에 몸을 담고 생사를 주님게만 의탁한 채 넘어들어야 했던 황해의 뱃길은 그분의 찬란한 순교적 생을 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1845년 10월12일 천신만고 끝에 사랑하는 고국의 땅을 밟았을 때 그 분에게는 진정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었고,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고통으로 얼룩진 산천은 고생 중에서도 갈망하던 바였습니다.

귀국하신 신부님은 겨우 1년의 짧은 사목을 하시다가 포졸의 손에 넘겨지자 그 분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시기 보다는 마치도 멀리 떠났던 주인을 맞이하는 종처럼 즐거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온갖 고문과 억압을 받으시다가 순교의 화환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설교 속에서 그 분이 살아오신 순교적 삶이 잘 드러납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외국사람과 통한 것은 오직 종교를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느님을 위해 죽어갑니다. 여기서 영원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 입니다.” 오직 하느님 만을 위하겠다는 정신, 그 정신으로 그 분은 죽을 수 있었고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현 삶 속에서 진정 하느님만 위해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리

불고지 죄

「서의원이 방북사실을 밝힌 것은 고백성사는 아니었으나, 신뢰를 전제로, 자신의 내면적 비밀을 밝힌 인격적 고백으로 성직자는 이를 발설하거나 제3자에게 전할 수 없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정법을 어기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다.」

이상은 김수환 추기경이 평민당 서경원의원의 밀입북사건과 관련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히던 내용이다.

「취재원 보호가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그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

서의원의 밀입북을 취재하고도 공안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사가 밝힌 자신의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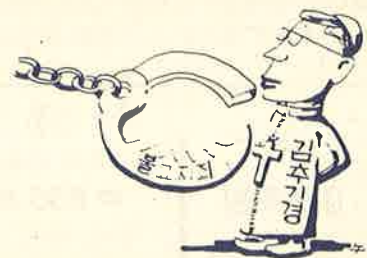
비록 고백소의 고백성사가 아닐지라도 사제가 신자들의 내면적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고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각오하면서 제보를 하겠는가.

어느 분야에서건 그 나름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의무는 대부분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실정법을 위반, 처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의연함이 더 중요하다.

서의원사건과 입수경량의 평양축전 참가 등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자, 때를 만난듯 「5공 청산 물건너 갔다」고 떠들어 댄 정부 여당의 국민여망을 의면하는 불고지 죄는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

순정이 산책



안하무인(眼下無人) 이로구나.

고해성사와 실정법

프랑스의 신학자 쿨만(O. Cullmann)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신약 성서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① 교회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제공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무정부주의와 반국가적 경향을 배격하여야 한다.

②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경계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국가가 자기의 한계를 넘으려 할 때에는 교회가 비판 세력으로서 있어야 한다.

③ 국가가 어떤 특정종교나 사상을 국민에게 강요하면 교회는 이를 거부해야 하고, 국가의 율권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규탄하여야 한다.

요즘은 같은 혼란시기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해설이라 생각된다. 정치와 종교는 언제나 분리(分離)될 수는 없으나 구별(區別)되어야 한다.

더우기 유착(癒着)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종교는 공동선을 외면하는 비도덕적이고 비 윤리적인 정권과는 숙명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비양심적인 것들에 대항해야겠지만 무정부 주의와 반국가적 단계로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7월1일 김수환 추기경님의 “서 강원 의원 입북(入北)의 불고지(不告知)죄에 관한한 당국에서 조사를 요구하면 응하겠으며 실정법에 어긋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다”라는 발언은 참으로 우리의 목자(牧者)다운 결단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고백성사의 집전자는 자신이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형제의 은밀한 양심 속을 알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고백성사의 비밀을 성스럽게 지켜야 한다.」(고백성사 지침10)

서의원의 고백이 비록 「성사」는 아닐지라도 어찌 목자가 ‘양’을 고발 할 수 있는가? 하느님의 법은 실정법 훨씬 위에 있는 것이다.



성서와 함께

50. 구약의 형성(B) : 모세오경의 저자

이런 명칭상의 문제는 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제기된 것이다. 오랫동안 가톨릭이건 프로테스탄트이건 교회는 오경이 모세의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단죄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성서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오경이 서로 문체와 내용과 배경이 다르고 무엇보다 모세의 죽음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오경의 저자가 모세일 수도 없고 오경이 한 사람의 일관된 작품일 수도 없다는 견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성서 학자들은 오경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수많은 모순과 충돌들을 발견하면서 이 다섯 권의 책들이 결코 한 가지 사료와 한 사람의 저자에 근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와 엘로힘 두 가지로 나타난다. 출애굽기 3, 14과 6, 3에 야훼라는 이름이 어떻게 처음 등장하게 되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는 데 반해

창세기 4, 26엔 야훼의 이름이 아담의 손자 에노스에 의해 처음 불리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 이름도 문제가 된다. 레위기와 민수기는 시나이산이라고 부르고, 신명기는 호렙산이라고 부른다.

다. 가나안의 주민들의 이름이 때로는 가나안족 때로는 아모리족으로 불리운다.

라. 더 중요한 모순은 사람의 창조에 관한 것이다. 창세기 1, 1-2, 3에 보면 인간은 남녀 모두가 엘로힘에 의해서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엿새째 되는 날에 동시에 창조되었으나, 창세기 2, 4-25에선 남자가 먼저 야훼에 의해서 땅의 먼지로부터 창조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짐승들 다음으로 여자가 창조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모순과 충돌을 오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어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위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식구 한분 구합니다
이리시 신동시장 옆
☎ 856-8301
엄마, 아빠, 5개월 된
아가 세식구 가정
※ 함께 숙식하실 분 환영

25분 완성 · 오거리사진방
전북칼라현상소
현명한 색상을 재현합니다
오 희웅 (암브르시오)
양 천추 (베로니카)
☎ 83-5335

축
개
원
이준호피아노음악학원
☎ 75-1812
송천동 호반촌 비사변
아파트상가 301호
※ 버스운행
원장 이준호 (안드레아)

잡 관!

기적의 술(酒)

“야! 성당에 다니면 돈을 주나? 밥을 주나?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서슴치 않고 얘기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 즉 뭔가 이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는다. 명예, 돈, 하다못해 ‘생색내는 일’이 아니면 손가락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봉사, 희생, 사랑... 그저 명목일 뿐, 생각은 전혀 엉뚱한 곳, 즉 이권에 있음을 많이 본다. 이러한 실리(實利) 위주의 풍토는 우리 교회 안에도 깊숙히 침투해 있다. 이득이 없는 사업에는 아예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풍토를 비웃거나 하는 듯 전혀 엉뚱(?)한 사업을 시작한 본당이 있다. 원평 본당의 농촌 아동을 위한 성모(무료) 유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도회지 아이들만 유치원에 다니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뜻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든 운영비는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일일 주점(酒店)」이다. 지난 7일부터 전주 카이저호프, 이리 카이저호프, 군산 본호프에 생맥주와 음료수를 준비하고 뜻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술’을 팔아 좋은 일 하겠다니...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허나, 좋게 마신 ‘술’이 ‘죄’ 될리는 만무하다. 예수께서도 칠폰을 ‘술’로 하시지 않았던가. 그 옛날 가나촌의 술이 한 집안의 명예를 살려줬듯이 기본종게 마신 생맥주나 음료수 한잔이 농촌 아이를 살리는 뜻있는 한잔 이길 바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보여 주자. 「전국 성체대회 성가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획득한 「그레고리오 중창단」이 더욱 흥을 돋우어 줄 것이다.

교 구 소 식

1. 변산해수욕장 주일미사 : 7월16일-8월13일(매주 일요일 오후4시) 장소-변산해수욕장 노천무대
2. 수녀연합회 월례회 : 7월10일(월) 10시-4시까지(가톨릭센터)
3. 이상십신부님 출국 : 7월11일 오후3시 미국LA 해외교포사목
4. 2젠(고교생), 3젠(국, 중)모임 : 7월9일 오후2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5. 전화번호변경 : 황등성당-사제관·사무실856-6541 수녀원856-4434
6. 성체성년대피점 : 1989년 7월17일(월) 9시40분-18시 곳-전주 중앙성당 초청강사-김보록신부님(광주 살레시오 수도원 원장) 김발다살 회장의 특송(오순절봉사회장) 참가비1,000원
7. 전동소년어린이양모후 꾸리아월례회 : 7월9일(일) 오후2시
8. 살레시오 수도회 성소캠프 : 7월 15일~17일 장소 : 전남 영광군 모래미 살레시오 캠프장(7월 15일 오후 6시 광주 수도원 집결) 대상-고1, 이상의 젊은이 회비-5,000원 신청 및 문의-7월 13일까지 560-060 광주직할시 북구 신안동 213-9 살레시오 수도원 성소담당 수사 전화 55-0332
9. 메리워드 모임(동정성모회 성소자모임) : 일시-89년 7월 16일 오후2시~5시 장소-동정성모회 이리분원 전화 855-3783 수녀원
10. 축 영명 : 11일(성베네딕도) 박성운, 김반석, 김병운, 김용태, 현유복, 권이복, 유영도, 양경태, 정천봉 신부님 15일(성모나네티라) 이수현 신부님

요심이 (831) 김병운



김반석(분도) 신부님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일시 : 1989. 7. 17
월요일 오전11시
장소 : 수류천주교회

- 1부 : 축하미사
- 2부 : 축하식 12시
- 3부 : 축하연 12시 30분

조립식건축의 완성

96 京一建業

김 해선 (대표이사)
전주시 신수동 흥국빌딩 101호
☎ 73-1611-75-0161

완벽시공으로 정진회를 다룹니다

맥코이 이온정수기 (보건사회부 허가 제210호)

— 수도직결 순간 이온정수기 —

“맥코이 이온정수기가 만든 알카리성 칼슘 이온수는 맛있는 물, 살아있는 물, 의료효과가 있는 물”

KBS-2TV : 월~금요일 아침8시30분 생방송(전국은 지금)에 TV광고 중
(주) 모리아크리스탈전북사업본부 사외부부장 서 동주(스타바노)
전주시 금암1동 706-4(합동시외버스터미널 산다방 2층)

☎ (0652) 75-1654, 77-4312

* 교우상담 및 문의전화 환영 ※ 직원모집 : 운전면허1종, 오토바이 소유자(교우환영)



천주교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三喜觀光(株)

해외여행에 관한 상담 및 문의 ☎ 87-5532 (전신전화국 옆)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중앙

사제관 77-1713 수녀원 5-1714 주임신부 황 인 규
사무실 77-1711 유치원 77-1712 보좌신부 최 용 준

*성안드레아 김대건사제 순교자 대축일

사목회장 황 의 옥

- 축! 세례성사: 오늘 10시 *축하식-공식미사후
하느님의 자녀로 가뉘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하절령일미사: 8월31일까지 대상당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반 예비지도집: 임교식-다음주일(16일) 공식미사후 *정성껏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 오월의 마돈나피씨름-오늘 오후2시 빈첸시오회-12일(수) 오전 11시 상지회-12일(수) 오후8시 천주의 모친 푸리아-14일(금) 어머니미사후 구역장·반장회합-14일(금) 어머니미사후 울트레아-15일(토) 오후 3시 하늘의 문 푸리아-다음주일(16일) 오후2시
- 청년금요성서: 매주(금) 저녁미사후 구페백일 창세기편
- 토요성서강의: 매주(토) 저녁미사후 강당 보좌신부님
- 미수구부판매: 빈첸시오의 집
- 성체성년 대피점: 17일(월) 오전9시 40분-오후6시, 장소-중앙성당
강사-김보록 신부님 많은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봉헌금: 1,364,700원 ☐ 교무금: 1,135,5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왕 수 해
사무실 사목회장 소 완 영
수녀원 76-0961

*축하드립니다: 7월5일 영세한 형제 자매님

- 구역장 및 빈집협의회: 공식미사후
- 푸리아회의: 차주 오후2시
-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1인1명
- 금주전례: 해설-신동철 독서①김영환 ②한정순
봉헌-김육기부부 기도-55반, 57반, 58반 복사-윤기환 송호관
- 차주전례: 해설-나인구 독서①김종성 ②서연옥
봉헌-김형배부부 기도-59반, 60반, 61반 복사-최계호 서범석
- 미사안내: 순결하신 모후Pr 차주-사랑하오신 모친Pr
☐ 지난주봉헌금: 일만828,990원 초. 중. 고54,960원 합계883,950원 ☐ 교무금: 1,146,5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 태 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 상 열
수·유 72-1222

*오늘은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 성회회: 공식미사 후(사목회의실)
- 베드로회: 공식미사 후(2층 회의실)
- 진북유치원 여름방학: 14일
- 전주 교도소 위문: 14일 도움 주실분은 13일까지 사무실에
- 원도미역을 판매합니다: 1봉2,000원
- 사랑의 잔치(원평성당) 티켓 판매합니다.
- 봉당공사가 한창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읍시다.
- 전일·전출시 교적을 본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첫영성체 사진 찾아가세요.
- 작보노사 수녀원 영명축일: 15일 축하드립니다.
- 금주본당청소: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15일 오후2시
☐ 지난주봉헌금: 1,003,780원 ☐ 교무금: 695,000원
☐ 교황주일헌금: 270,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 순 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 영 철
수녀원 77-4212

-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안나회 글라라회 10일-울트레아 15일-동성회 차주공식미사후-구역장회
- 구역미사(11일): 동산6구역
- 나눔잔치(12일): 원동
- 초·중·고생 하계성경학교가 곧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본당 살림이 어렵습니다. 교무금 납부에 협조바랍니다.
- 금주청소: 은송의 어머니Pr. 차주-하늘의 문Pr.
- 금주전례: 해설-손태규 독서①전창수 ②최병우
차주전례: 해설-김진래 독서①경 작 ②강우창
☐ 지난주봉헌금: 358,410원 ☐ 교무금: 568,000원
☐ 수요헌금: 55,110원 ☐ 2차헌금: 87,000원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 성 팔
사무실 4-2214 사목회장 박 병 열

- 벽돌헌금 및 폐품수집: 우리들의 정성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 교무금 납부에 성의를 다 합시다.
- 퍼티마의 성도 순례: 신청자 접수 바랍니다.
- 여름산간학교: 일시-22일~24일 참가비5,000원 대상자-중·고등부 준비물-미사 도구및 쌀 두되
- 여름성경학교: 일시-27일~30일 대상자-초등부
- 세계성체대회 참가신청: 접수일시-9일~30일 참가비6,000원 대상자-전신자 접수-사무실
- 금주모임: 공식미사후-성조희, 울트레아 차주모임-푸리아
금주본당청소: 평화의 모후 차주-매피의 모후
금주미사안내: 매피의 모후 차주-증거자의 모후
금주전례: 해설-오정중 독서①이부남 ②김춘자
차주전례: 해설-오정중 독서①임상영 ②조기준
☐ 지난주봉헌금: 306,930원 ☐ 교무금: 277,500원

*송천동

사제관 74-8873 주임신부 김 태 윤
사무실 74-1004 사목회장 소 병 을
수녀원 4-1142

- 오늘의 모임: 안나회, 바울로회, 하삼바울로회-공식미사후
- 남자구역장총무 임명: 7월 월보참조
- 첫영성체: 22일 교리-화-금 오후5시
- 성체조배: 매주 목요일 저녁8시~10시
- 구역미사: 1구역12월 2구역13일
- 금주본당청소: 송천10구역 15일 오전10시
- 금주전례: 해설-김현수 독서·복사-박세영 송기섭
기도·봉헌-하늘의 문Pr
차주전례: 해설-이건창 독서·복사-김은식 전원길
기도·봉헌-바다의 별Pr
☐ 지난주봉헌금: 466,880원 ☐ 교무금: 341,000원
☐ 교황주일2차헌금: 189,14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 궁 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 규 철
수녀원 3-9567

- 정주복(이오스딩) 형제님 특별강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오늘 주님의 자녀로 새로이 탄생하신 형제·자매님께 축하드립니다.
-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영세식(공식미사중) 울트레아, 청년회 2. 구역장단합대회: 10일(월) 장소-삼천포 3.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준비9일기도가 15일(토)부터 시작됩니다. 4. 다음주일: 2차헌금 있을 모임-푸리아, 12사도회, 청년회
- 성서읽기운동 시작완전도 삼개월이나 되었는데 너무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모두가 이운동에 참여합니다. *정성읽기 카드는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고 읽으시면서 확인도장을 사무실에서 받아주세요.
- 수녀원 건립기금 납부가 매우 부진합니다. 남부에 성의를 다합시다.
- 설기에 취미가 있으신분은 설기대에 입단합니다: 연습-매주 토요일
- 금주본당청소: 화-순교자의 모후 토-상아보탑
- 미사안내: 셋벌의 모후 10. 미사해설: 점이동
- 금주전례: 독서·기도-김동용 조숙진
봉헌·기도-김동용 조숙진
차주전례: 독서·기도-임창수 권정희 봉헌·기도-김진섭 김영희
☐ 지난주봉헌금: 458,450원 ☐ 교무금: 1,053,000원

*인후동

사제관 86-8876 주임신부 서 용 복
수녀원 86-8875 사목회장 정 수 일
사무실 86-5022

- 사목회 월례회의: 9일 공식미사후
- 점마회 월례회의: 13일(목) 어머니 미사후
- 감사: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예비자 입교식 및 교리시작: 18일 저녁미사후 1세대 1인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 영세 하신분 영세사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가정을 위한 생미사의 선영을 위한 연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드립니다.
- 비품사용후 제자리에 꼭 정리정돈을 하세요.
- 미사시간을 엄수하세요.
- 고백성사안내: 매미사 15분전에
- 다음주모임: 안나회 월례회의-공식미사후(강당)
☐ 지난주봉헌금: 942,590원
☐ 성전신축을 위한 2차헌금: 382,310원 협조에 감사합니다.